

# 내달 4일, 세계 최정상 비보이들의 대축제

### ‘전주비보이그랑프리’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국내·외 유명 비보이 크루 30팀 참가 ‘격돌’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들이 글로벌 문화도시 전주에서 문화축제를 연다. 전주시와 사)라스트포원은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전주비보이그랑프리가 오는 5월 4일 오후 6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고 18일 밝혔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비보이 크루 약 30여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오후 1시 비공개 예선전에 이어 오후 6시부터 개회식과 본선 배틀이 진행된다.

본선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우승 상금을 놓고 격돌하게 되며, 우승 팀에게는 상패와 함께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본선대회 수상자들에게 총 2,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전주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비보이 크루 ‘다스트포원’이 직접 기획과 홍보, 진행을 맡아 비보이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는 전주비보이그랑프리 최초로 미국 1세대 레전드 비걸(B-GIRL) ‘ASIA ONE’과 세계 메이저 비보이대회 5개를 모두 석권하고 부천시 문화예술홍보대사로 활동중인 진조크루의 ‘SKIM’과 러시아의 ‘YAN’이 맡아 공정성을 높인다.

아울러, 전 세계 비보잉 현장에서 가장 인정받는 WRECKX(최재화)가 DJ를 맡고 사회는 비보이대회 전문 MC인 SNPA(박재민)와 DU LOCK(두락이)이 맡는다.

오프닝 공연은 미국 월드오브댄스에서 화제를 모은 ‘더에이미’가 맡게 되며, 게스트 공연은 △독창적인 퍼포먼스로 2018년 골든나인 페스티벌 우승을 차지한 ‘원더크루&블랑크’ △‘쇼미더머니’를 통해 널리 알려진 ‘답플로우와 너살’의 힙합 공연 등 여러 아티스트들의 특별 공연이 전주비보이그랑프리를 찾는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제13회 2019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공식 기자회견이 18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박재열 교육청소년과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본선대회장 입장은 무료 배부처에서 받은 좌석교환권을 행사당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매표소에서 오전 11시부터 지정좌석권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선착순

1,700명만 오후 5시부터 입장할 수 있다. 전주비보이그랑프리 관계사는 “올해는 ‘새로움과 새로움의 대결’이라는 컨셉으로 배틀에 참여하는 신인과 기

성 모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열정만 있다면 비보잉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최고의 배틀과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 직원 세미나로 탄소기업 성장 돕는다

### 탄소융합기술원, 매주 수요일마다 세미나 개최 앞서 ‘지식재산권 제도 이해’ 등 주제로 진행

대한민국 유일의 탄소전문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원장 방윤혁, 이하 기술원)이 탄소관련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상시 세미나를 연다.

기술원은 탄소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와 조직문화 혁신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매주 수요일 탄소기업 관계자와 기술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산업 환경 속에서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탄소기업 및 기술원 구성원의 개인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기획됐다.

특히 기술원은 이 세미나를 통해 최신 탄소기술을 소개함으로써 탄소기업과 기술원이 동반 성장하고 대한민국 탄소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술원은 지난 17일 김광

철 특허청 정밀화학심사과 심사관과 신재형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단장을 초청해 각각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해 및 활용’과 ‘수소경제현황과 이행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먼저, 특허청 정밀화학심사과의 특허심사 분야 중 탄소섬유를 비롯한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고분자재료 응용분야 등 탄소소재 및 그 응용 분야 전반에 대한 특허를 심사하는 부서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허의 정의를 시작으로 특허의 등록요건, 침해판단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또한, 수소경제 세미나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에 대한 현황과 이에 따른 정부정책 로드맵이 소개돼 수소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탄소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기술원은 18일에도 안동영 중앙보훈

병원 센터장의 ‘보장구 관련 요구기술 및 연구현황’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재활 보조기기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기술원은 향후에도 탄소기술 분야는 물론, 연구개발 기회, 기술가치 향상 전략, 성과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관련 기업과 기술원의 연구원들이 한데 모여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 예정이다.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탄소관련 기업들과 기술원의 연구원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원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는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방법 및 교육일정 등은 기술원 홈페이지(www.kctech.re.kr) 공지사항을 통해 알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원 정책기획실(063-219-3522)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 관광객 유치 전주여행 홍보전

### 시, 오늘 ‘전북트래블마트’ 참가

전주시가 외국인인을 포함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주여행 상품 홍보전을 펼친다.

시는 19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리는 ‘2019 전북트래블마트’에 참가해 인바운드 여행사 등 주요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B2B 관광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9 전북트래블마트는 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여행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여행사와 관광 관련 업계 및 단체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전북트래블마트 상담회 방문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여행’ 등 전주만의 관광 상품을 안내, 여행사 등 관광업계가 전주의 다양한 관광소재를 활용한 여행상품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 개최하는 제23회 전주한지문화축제와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등 5월에 전주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와 한국관광공사 선정 ‘한국관광 100선’에 4회 연속으로 이름을 올린 전주한옥마을과 연계한 전주만의 수려한 여행상품 등을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의회 문경위, 풍패지관 서익헌 보수 공사현장 방문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형배 의원)가 18일 풍패지관(객사) 서익헌 해체보수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풍패지관 서익헌 해체보수공사 2015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기동이상 전체해체가 결정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지붕해체가 진행 중이며 약 1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형배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철저한 고공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꼼꼼하고 정확한 해체보수공사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풍패지관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풍패지관은 전주의 상징과 같은 문화유산이다”며 “시민들을 위해 풍패지관의 해체보수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재향경우회 정기총회, 전북경찰청서 열려

전북경찰청에서 재향경우회 전북지부가 정기총회를 가졌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본청에서 오형재 재향경우회 전북지부장과 경무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재향경우회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전직 경찰관들의 모임으로 전·현직 경찰관 간의 긴밀한 유대로 안전한 지역치안을 유지하고자 만들어진 단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전주안산지회 소속 윤재근 씨, 익산지회 소속 김해영 씨가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 또한, 김제지회 소속 최용권 씨, 익산지회 고상후 씨, 진안지회 강태수 씨가 전북청장 감사장을 수상하는 등 총 10명이 감사장 및 경무회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오형재 경무회장은 “도민과 함께 하는 경우회, 치안협력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경우회,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에 주력하는 경우회로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철 청장은 “치안전반에 걸친 적정절차, 인권의식 체질화를 통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 등으로 평온한 전북치안을 유지해오고 있다”며 “올해는 도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배님들이 잘 닦아 놓으신 전북치안을 더욱 발전시켜 도민이 안전한 전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 새순 흠친 일당 붙잡혀

발에 재배하는 참두릅 나무 새순을 흠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2시경 익산 시내 한 발에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참두릅나무 새순 15kg을 흠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간 비닐봉지에 새순을 담아 흠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석훈 기자



49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핵심 리더 워크숍이 18일 부안 해나루 가족호텔에서 송해진 도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새마을의 날 49주년

### 전북새마을회, 기념식·핵심리더 워크숍

전북도새마을회(회장 정준모)는 49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핵심 리더 워크숍을 18일 부안 해나루 가족호텔에서 송해진 도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초청 내빈 등을 모시고 2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기념사, 축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준모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날 선배지도자님이 보여준 헌신적 열정과 도전정신을 되살려 공존

과 순환,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로 대변하는 37년의 첫 해, 모두가 힘을 모아 전라북도 구석구석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해주시길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회는 새마을의 날 주간동안 제정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미개항된 각급 기관 새마을기다시달기와 새마을대청소, 자원재활용 수집 경진대회, 인보복지 활동 등 각종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 25일 2019년도 정기총회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전주시 그랜드힐스호텔에서 책 읽는 도시 관계자들이 모여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18 책의 해’에 책 읽는 도시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독서진흥 시책의 효과 제고 및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기여를 목적으로 2018년 11월 28일에 창립했다.

협의회는 초대 회장도시인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 전국 30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날 정기총회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도서관 실무자 7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협의회 정기총회 및 워크숍 일정은 김승수 회장의 인사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김수영 원장의 축사에 이어 △1부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결, 독서문화정책 공모사업 안내 △2부 자치단체장들의 우수 독서문화 프로그램 소개와 초청 강연 순으로 진행된다.

초청강연은 한국도서관협회 제29대 회장(7월 취임 예정)으로 선출된 남영준 교수(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가 ‘책 읽는 가족공동체, 도서관과 도시의 품격’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 전북대병원 호스피스병동

### 환우 위한 봄 음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우와 가족들의 활력을 위한 ‘봄 음악회’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에 입원해 있는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를 통해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스피스의료병동 복도에서 열린 이날 음악회에서는 벚꽃엔딩, 아리랑, 새소리, 첫사랑, 살짜기음속에, 열가의 사랑의 인사 등 환우들의 정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곡들을 오카리나와 비올라 성악 등의 연주로 진행됐다. /김영태 기자

## 친동생 흥기 찌른 20대 ‘감형’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며 핀잔을 주는 친동생을 화가 나 흥기로 찌른 20대가 함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모(20)씨에 대한 함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3시20분경 전북 전주시내 자택에서 친동생 B모(당시 17)군을 폭행하고 눈과 이마 등을 흥기로 찌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이 “왜 라면을 먹고 설거지를 하지않느냐”고 핀잔을 주자 화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흥기에 찌른 B군은 현장에서 달아나 목숨을 건졌으나 뇌손상 등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조사결과 고교 졸업 후 게임에 빠져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만 생활하던 A씨는 B군과 평소 사소한 일로 주먹다짐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훈 기자

## 김제 요촌 사거리 차량 충돌

18일 낮 12시 48분경 전북 김제시 요촌동 한 사거리에서 싼타페 차량과 SM5 승용차가 충돌했다.

충돌한 여파로 SM5 승용차는 인근 카페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SM5 운전자 A모(36)씨와 동승자 B모(60)씨 등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SM5가 돌진한 카페의 출입문과 유리창 일부도 파손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